

전염성 후두염 (ILT)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자 양축가의 관심이 ILT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다. 더욱이 ILT는 한번 걸리면 치료방법도 없으며 예방접종의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많고 시술방법의 불편등 외에도 일단 발병한 농장이나 예방접종이 실시된 농장은 상재지가 되기 때문에 더욱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계절병으로 여름철이면 잠잠하려니 생각했는데 이제는 종계 브로일러 할 것 없이 마구 전파되고 있다.

비교적 전염력이 약한 질병인데도 이토록 전파가 빨리 되는데는 우리나라 특유의 전염병의 병원체를 빨리 다른 농장에 전달할 수 있는 병원체 유통구조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발병되면 초기에 털장사들을 통하여 병제들이 전국으로 배부되며 이 작업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국을 1일 발병권으로 만드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뒤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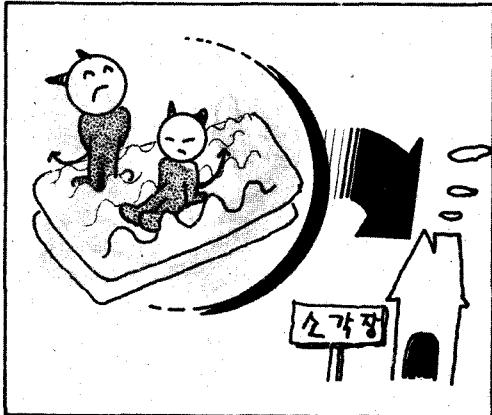
게 병제사절운동이 일어 났지만 이미 질병이 들어온 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브로일러나 노폐계를 처분할 때는 자동차를 세차장에 물고가 세차를 한 후(세차비용은 차 2,500원, 털어리 2,500원 정도) 양계장 밖에 세우고 양계장 종업원을 통해 운반해서 처분해야 한다. 최근에는 ILT 발병농장에서 털을 처분한 후 종업원이 다른 양계장으로 일자리를 옮기면서 병원체도 함께 옮겨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의심도 하고 있다.

인천 근교의 C 단지 경우에도 최초 발병지 역인 강화의 농장과 같은 계란 상인에 계란을 출하하는 농장에서부터 발병 되었다고 한다.

난자의 대이동은 ILT 이전에도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로 양계 농장에는 항상 불안한,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안전핀 빠진 수류탄과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조류학자들이 철새의 이동을 연구할 때 철새에 각대(ring)를 끼어 날려 보내는데 우리도 플라스틱 난자에 몇 월 몇 일 어느 농장 누가 표시한 것으로 이 난자를 받는 사람은 ○○으로 연락하여 주시오하고 표시하여 돌린다면 난자가 시속 몇 km로 이동하는지 난자가 전국에 어떻게 옮겨 다니는지를 알 수 있어 방역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현재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상인의 플라스틱 난자에 알을 담아 거래가 되고 또 빙난자를 상인에게서 받아 계란을 담는 이러한 비



위생적인 난파 유통이 왜 근절되지 않는지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많은 종계장에서는 방역 때문에 플라스틱 난파를 사용치 않고 종이난파를 1회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일반 채란농가에 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종이난파의 품질이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수하지 못하고, 가격면에서도 1회만 사용할 경우 계란 1개당 약 1 원의 비용이 가산되어 만수 규모의 양계장 경우 년간 약 250 만원의 추가 부담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대량생산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집란센터를 통한 유통구조의 개선등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손님 양계인

금년부터 시작된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국민학생들에게 절대적 이

라고 한다. 권투에서도 축구에서도 아마추어 보다는 프로가 흥미 진진한데 이것은 두 말 할 것 없이 프로화에 따른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소위 선수들의 프로운 성의 발휘 때문이다. 이렇게 직업의식이란 무서운 것이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나타낸다. 국가원수의 경호원들은 자기 직업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몸으로 방탄 조끼 역할을 하는 것을 TV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목숨인 줄 알았는데 직업의식이란 어느 면에서 목숨도 버리는 것인가 보다.

양계도 천직으로 하는 경우와 그저 아마추어 기분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다. 양계하면 돈을 번다니까 소위 한탕심리로 한번 무돈을 잡으면 밭을 빼겠다는 생각 말이다. 이러한 관념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항상 투기화 되어 불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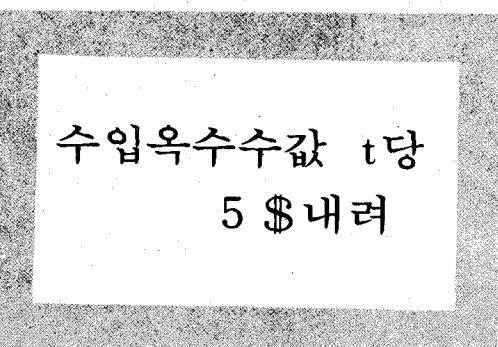
한 손님이 길을 가다 가난한 집에 하루 쉬어 가게 된다. 마침 그날 따라 비가 와서 방안에 물이 새어 뚲뚝 떨어진다. 집주인은 아들을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 비가 새는 곳을 찾고 이 곳에 비닐을 덮고 슬레트나 가마니를 엎어 비가 새는 것을 막는 작업을 비를 맞아가며 열심히 한다. 방에 앉아 있는 손님은 천정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피하기 위하여 이리 저리 움켜 않는다. 불평 불만이 대단하다. 주인과 손님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보다.

지금까지도 양계를 천직으로 하는 사람은 불평 없이 비가 내면 지붕에 올라가 비를 맞으며 새는 구멍을 막아왔다. 추운 겨울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면 문풍지를 대고 바람을 막는다. 그러나 손님은 비가 새도록 허름한 집을 원망하며 집이 잘지어 졌느니 못지어 졌느니 또는 설계의 잘못을 원망한다. 그리고 다음날은 그 집을 떠난다.

지금 양계업계는 양계 산업의 안정화를 한창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그때 그때



비가 새는곳을 막고 땀질하는 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새로 콘크리트 슬라브로 튼튼하게 짓자는 운동이다. 안정화 방안이란 설계도는 이미 작성 되었다. 집을 짓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손님의식으로 구경꾼이 될것인가 아니면 새로 집을 짓는데 내집을 짓는다는 주인의식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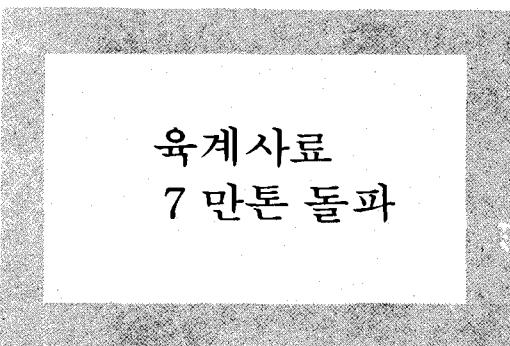
농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사료용 수입곡류(옥수수) 안정기준가격이 t당 150\$에서 145\$로 5\$ 인하 조정 되었다.

이번 안정기준가격이 3.45% 인하됨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이 인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7월 1일부터 수입곡류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사료가격 전망 참고) 기타 부원료의 관세도 6~10%로 관세율이 상승 되었기 때문이다.

7월부터 관세율의 인상등 배합사료 가격이 소폭으로나마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은 이번 정부의 안정기준가격 인하로 모두 해결하게 되었다.

우리와 여전이 비슷한 자유중국의 경우는 5월 26일부터 기준가격을 142\$로 이미 내린 바 있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6월 중 육계사료 생산량이 7만4천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육계사료 생산량이 5만톤을 넘으면 적신호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7만톤을 넘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 해도 불안한 마음을 없앨 수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육계사료가 가장 많이 팔린 작년 9월의 5만3천8백톤 보다도 2만톤이 많은 것이며 더욱 우리가 우려할 일은 전기사료가 3만t에 육박해서 앞으로도 계속 육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벌써 육계를 오래 계속하거나 앞으로 전망을 관측하는 업자들은 입식을 조절하기 시작한 것도 불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ILT로 종계장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병아리가(육계) 적게 나와 입추하면 성공한다는 선전에 현혹되어 무작정 입식 할지도 모르겠으나 ILT는 회복이 빠르고 회복후에는 산란등 모든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며 더욱이 수평감염의 우려도 있어 브로일러 농장으로서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브로일러의 경우 전기사료 생산량만 정확히 추정하면 2개월후의 브로일러 생산량도 비교적 정확히 추정 됨으로 본회에서 10일간 격으로 조사하는 육계 사료 생산량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생산 조절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배합사료(육계용) 생산량 문의는 752-3571



~2. 지도조사부로 문의하면 된다.

구분 년월	육계사료		
	전기	후기	소계
80	7,785	16,335	24,120
81 1월	11,747	20,790	32,537
82	9,934	17,374	27,308
80	6,077	5,329	11,406
81 2월	10,370	19,774	30,144
82	12,557	16,560	29,117
80	12,890	9,909	22,799
81 3월	14,202	22,191+390	36,783
82	18,780	22,764	41,544
80	17,601	21,436	39,037
81 4월	16,172	23,598	39,770
82	23,243	30,958	54,201
80	19,956	30,332	50,288
81 5월	20,793	21,098	47,891
82	25,956	35,989	61,945
80	19,941	33,785	53,726
81 6월	20,774	30,010	50,784
82	30,000	44,000	74,000
80	18,974	38,392	57,366
81 7월	20,772	30,541+327	51,640
82			
80	14,697	33,316	48,013
81 8월	20,448	30,980+321	51,749
82			
80	12,133	27,104	39,237
81 9월	19,281	34,568	53,849
82			
80	12,552	24,291	36,843
81 10월	17,815	35,002	52,817
82			
89	10,695	17,613	28,380
81 11월	14,241	31,865	46,106
82			
80	14,187	24,264	38,451
81 12월	12,210	31,891	44,101
82			
합계	167,488	282,106	449,594
	198,825	339,346	538,171